



[임시정부 100주년]  
하늘 아래  
첫째 가는 은행  
日 맞서 민족금융 수호  
04



Economy

코스피	2216.15 (0.00)	코스닥	762.57 (0.00)
금리 (미국 3년)	1.76 (+0.02)	환율 (원/달러)	1136.90 (0.00) (19일)

# 1분기 GDP 성장률 0.3%... 디플레이션 경고등

(소시에테제네랄 전망치)

경기부양 안간힘에도 곳곳 빨간불  
2월 생산 1.9%, 투자 10.4% 감소  
1분기 소비자물가 0.5% 상승그쳐

성장동력 가뭄에 불황 장기화 우려  
25일 1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주목

“지난 1월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올해 경제 성장률은 2.5%,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로 전망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연 기자회견에서 “1분기 중 수출과 투자의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점을 주로 반영한 것”이라며 성장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기진단을 ‘부진’(기존 ‘둔화’)으로 바꿨다.

봄바람이 불 것 같던 한국경제에 ‘D(디플레이션·Deflation)의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흥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이 기업 구조조정, 일자리 늘리기,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경기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회복은 커녕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업 설비투자와 민간 소비가 위축된 데다 경제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분기 0%대 성장 우려가 현실될까

21일 블룸버그컨센서스기준 한국경제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5%, 전년 대비 2.6% 낮아 질 전망이다.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SG) 이코노미스트는 전분기 대비 1분기 성장률을 0.3~0.4% 정도로 예상했다. 하나금융투자도 지난 1분기 국내 GDP(전분기비 0.3%, 전년비 2.4%)의 부진을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치(속보치)를 발표한다. 예상대로라면 2017년 4분기(-0.2%) 이후 5분기 만에 가장 낮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12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미중 무역갈등, 블랙 시트 등 불확실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그린북을 통해 ‘부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2016년 12월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2월 생산을 보면, 전 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1.9% 줄었다. 투자도 부진에서 벗어날 조짐이 없는 상태. 설비투자는 1월 1.9% 증가했으나 2월엔 2013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인 10.4% 감소했다.

내수 경제는 저혈압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에 그쳤다. 통계집계가 시작된 1965년 이래 분기 기준으로 최저다. 월별로는 1월 0.8%, 2월 0.5%, 3월 0.4%를 기록했다.



지구를 사랑해주세요

2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9년 지구의 날 행사’에서 시민들이 체험부스, 주제관 등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물가 중 변동성이 큰 식료품, 에너지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 역시 지난달 0.9%로 0%대에 진입했다.

경상수지 흑자 폭은 뒷걸음이다. 2월 경상수지는 36억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흑자 행진이 마감될 분위기다. 현대 연구원은 매년 4월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이 집중되어 있어 본원소득수지 적자폭이 큰 점을 고려하면 이달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지적했다.

◆돈이 도는 경제 만들어야  
‘D’의 공포가 우려로 끝날까. 이주열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1.1%로 낮췄지만 디플레이션(물가의 지속적 하락)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디플레이션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가 경험했듯, 만성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국민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러나 침체 국면이 오래 이어지는 현 국내 경제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은 매우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에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투자 부진이나 고용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의 경우 명목임금 상승

물이 하락해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어진다. 정부 역시 재정이 부실해 질 수밖에 없다. 일본이 좋은 예다. 일본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성장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더욱 한국경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물가 하락을 이끄는 중심축의 이동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제유가 및 농산물 가격 하락 등 공급측 요인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투자, 소비 부진 등 수요 요인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 (2면에 계속)

/김민호 정치경제부장 kmh@metroseoul.co.kr

## 롯데카드 새 주인에 하나금융 유력

한화그룹 등 본입찰 참여 안해  
인수땀 하나카드 ‘업계 2위’로

롯데카드의 새 주인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유력해졌다. 롯데카드 인수전은 하나금융과 한화그룹의 양강 구도로 좁혀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화그룹이 손을 뗐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금융이 롯데카드를 인수하게 되면 하나카드는 단숨에 업계 2위사로 오르게 된다.

다만 인수가격이 관건이다. 롯데그룹은 롯데카드 매각 희망 가격으로 1조 5000억원 이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보장도 변수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롯데카드 본입찰에 하나금융과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가 최종 참여했다. 유력한 인수 후보 중 하나였던 한화그룹과 숏리스트 선정업체 중 하나인 IMM프라이빗에쿼티는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초 롯데카드 인수전은 하나금융과 한화그룹의 양강 구도가 될 것이라 전망이 높았으나 핵심 인수자로 꼽혀온 한화그룹이 본입찰에 나서지 않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내놓으면서 카드 대신 항공 쪽



에 눈을 돌린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하나금융이 롯데카드를 인수하게 되면 점유율 기준 업계 최하위인 하나카드는 신한카드에 이어 2위사로 뛰어오르게 된다. 전체 신용판매 기준 하나카드와 롯데카드의 시장 점유율은 약 8.2%, 11.2%로 총 19.4%로 높아진다. 신한카드의 시장 점유율은 21.5%다.

자산규모로도 3위를 넘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카드(12조6527억원)와 하나카드(7조9847억원)의 자산규모 합계는 약 21조원이다. 이 경우 통합되면 신한카드(29조3500억원), 삼성카드(23조47억원)에 이어 3위다. (8면에 계속)

/김희주 기자 hj89@

## 전자상거래 호황에 패키징 시장도 ‘날개’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 111조  
택배 물량도 25억 박스로 늘어나  
동원시스템즈 등 업계 적극 투자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패키징(포장)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전자상거래 특성상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품 운송이 요구되는데 이 과정에서 패키징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패키징이 내용물의 보호와 보존, 상품의 안전한 배송을 위한 기능을 넘어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역할을 하면서 패키징이 갖는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서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업체를 선도하는 가운데 국내에선 쿠팡, 네이버 등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이끌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5년 54조원에서 지난해 111조원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택배 물량은 18억 박스에서 25억4000만 박스로 늘었다.

패키징 시장도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다. 영국시장조사업체스미더스피라에 따르면, 패키징 산업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산업이며, 산업의 규모는 2018년 8760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1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는 국내 패키징 시장이 2010년 16조원에서 2015년 24조원으로 성장했고, 2020년에는 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은 발빠르게 패키징 시장의 성장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

◆“1000조 시장 잡아라”...업계 각축전 치열



동원시스템즈가 생산하는 다양한 연포장재. /동원시스템즈

종합포장재 계열사인 동원시스템즈는 약 1000조원 규모의 글로벌 포장재 시장에서 국내 업체 중 최전선에 서있는 기업이다. 국내 식품, 음료 포장 대부분이 동원시스템즈에서 생산된다.

동원시스템즈는 1993년 처음 포장재 산업에 진출해 동원F&B에서 생산하는 식품의 연포장재와 통조림 등 포장재를 생산했으며, 현재 국내외 포장재 시장에서 다수의 크고 작은 인수·합병을 진행하면서 모든 소비재를 제조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종합포장재 회사로 우뚝 섰다.

후지제록스는 디지털 인쇄를 통해 패키징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후지제록스의 하이엔드급 디지털 인쇄기 ‘이리데스 프로덕션 프레스’는 변화하는 인쇄 패키징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원패스 6컬러 프린트 엔진’을 탑재했으며 CMYK 드라이 잉크와 더불어 최대 2가지 특수 드라이 잉크를 추가해 한번에 인쇄할 수 있다.

한솔제지는 특수소재 부문에서 생산 설비 증설 등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2면에 계속)

/구서윤 기자 yuni2514@